

# 해남군 “억대부농 1700명 육성 할 것”

해남군이 농어업 소득 1조7000억원, 1억원 이상 고소득 농어업인 1700명을 육성하는 농어업 5개년 계획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남군은 민선7기 해남군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신규사업 발굴과 분야별 장기 비전 설정을 위한 미래 설계 보고회를 통해 농어업분야의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해남농어업 5개년 발전 전망은 농어업 소득 1조원 달성을 넘어 오는 2022년까지 소득 1조 7천억원 달성, 1억원 이상 고소득 농어업인 1700명 육성을 목표로 생산과 가공, 유통 등 전 분야에 걸쳐 혁신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농업분야는 농업소득 1조원과 역대부농 1000명 육성을 목표로 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마련됐다. 전국 제 1의 경지면적과 친환경인증면적 보유를 바탕으로 친환경 농업을 내실화하고 안정적 관로 확보와 경영 안정을 위한 소득 다변화, 가공과 유통 기반 확충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기술 보급과 고부가 가치 미래 농업을 주도하는 선진 농업군으로서의 위치를 선점해 나가기로 했다.

어업분야는 7천억원 소득달성과 고소득 어업인 700명을 육성한다.

## 2022년까지 농어업 비전 5개년 계획 ‘관심’

### 소득 1조7천억원 달성 등 혁신적 전략 마련



지난 21일 최성진 해남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송지면 송호리 전복양식장을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해남군은 오는 2022년까지 어업 소득 7000억원과 고소득 어업인 700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천억원 위관고에 근접하고 있는 물김을 비롯해 미른김과 자반 등 김 산업이 수산물 소득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군은 2022년까지 수산물 소득 7000억원의 비전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한 수산물 SOC 확충과 수

산자원 조성 등 생산기반 확충과 함께 수산물의 유통과 가공, 브랜드화를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4년까지 김 수출 1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 주력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는 김을 중심으로 한 수산 양식 기반 시설의

확충과 고품질 수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수산물 유통물류센터와 가공단지 조성, 비교우위 수산물에 대한 브랜드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 개선도 눈에 띄고 있다.

해남군은 2017년말 기준 1조 1556억원의 농어업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순소득 1억원 이상 농어업인은 총 773명으로 집계됐다.

분야별 소득은 농업 5588억원, 어업 1197억원, 유통 2511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월 관내 농어 및 법인을 대상으로 2017년 기준 순소득 1억원 이상 농어업인 통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73명으로 농업 분야 460명, 어업분야 313명이다.

더불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농어가도 지난해 9957가구(농업 488, 어업 382)로 집계돼 앞으로 역대 부농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최성진 군수 권한대행은 “지난 2015년 농어업 소득 1조원을 돌파한 해남군은 매년 예산의 30%를 농어업에 투자해 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농어업 비전 선정을 통해 전국 최고의 부자 농어촌을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영암군 보육·아동위원회 심의회 개최

### 보육사업 시행계획·어린이집 인가 제한 여부 등

영암군은 지난 2월 23일 오후 2시, 영암군청 남산실에서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1차 영암군 보육·아동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2018년 영암군 보육사업 시행 계획 보고 및 어린이집 인가 제한 여부에 관한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2017년말 기준으로 영암군 보육 대상 아동은 2,672명, 보육 정원은 2,672명인데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1,668명이며 그 외 유치원 보육 544명, 가정양육 462명을 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관내 어린이집 이용률과 정원 충족률이

62.3%로 전국 평균 82.0%에 못미쳐 어린이집 인가 제한에 해당되어 다음해 어린이집 수급계획 수립 시까지 신규인가를 제한하고 소제지 변경 제한 기준 및 인가 제한 예외대상 어린이집 기준과 함께 2018년도 어린이집 운영 특례인정(교사제 아동 비율 특례) 여부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장(전동평 군수)은 “키즈 세이프 영암만들기를 위해 영유아의 복지와 직결되는 보육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현해나감에 힘쓰고자 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강진군, 청소년 나눔 프로젝트 ‘맛있는 초대’ 시작

### 볶음 우동 만들어 친구들·지역주민에게 대접



지난 24일 강진군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 스스로 준비해 이웃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청소년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15명의 청소년들이 강진군청소년문화의집 2층 요리실에서 모여 이웃들에게 나눠줄 볶음 우동을 만들고 있다.

강진군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 스스로 준비해 이웃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청소년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지난 24일 첫 번째 프로그램인 ‘맛있는 초대’를 시작으로, 매월 청소년들의 나눔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청소년 요리교실을 통해 자신의 요리 실력을 쑥쑥 키워온 청소년들이 이번에는 볶음 우동을 만들어 청소년문화의집을 방문하는 친구들과 지역주민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다.

청소년 스스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독립심과 창의력, 협동정신, 타인에 대한 배려까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어 점점 인기를 더하고 있다.

특히 박미영 요리연구가의 따뜻한 열정적인 노력으로 청소년들이 요리기술이 아닌 이웃을 대접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배우고 있어 참가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다.

회를 거듭할수록 프로그램에 참여한 친구들과 음식을 맛본 청소년까지 모두 프로그램 만족도 설

문조사에서 ‘ 즐겁게 참여했다’, ‘프로그램에 또 참여하고 싶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올해 강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이 관심이 많으나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직업에 관한 체험 및 자격증 중심으로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탐색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빠르게 설계해 양식조리기사 자격증 반을 4월부터 진행한다.

미용에 관심을 갖고 처음으로 접하는 청소년들에게 메이크업, 네일,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을 알려줘 외모에 대한 자신감과 동시에 정서를 함양하는 청소년으로 성장하고자 뷰티아카데미도 진행할 계획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청소년들이 건전한 지역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한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과 댄스교실, 요리교실, 동아리실, 노래방, 휴카페 등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와 프로그램들이 있는 청소년들의 휴식의 장소이자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 곡성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협의회 개최

### 농업기술센터 61명 참석

곡성군은 지난 23일 농업기술센터 대청미팅에서 쌀생산 조정단협의회원, 쌀전업농, 조사료연계체, 읍면 업무담당자 등 61명이 참석한 가운데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추진상황 협의회를 개최했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군 목표량 309ha 달성을 위하여 오는 4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를 한다.

이번 협의회는 군 목표 면적 달성률과 효율적인 타작물 재배품목 선정을 위해 마련되었다. 각 읍·면 특화품목(감자, 옥수수, 토란 등) 위주로 타작물 재배 면적을 늘리고, 조사료연계체에서 그동안



하계조사료 작물인 옥수수를 주로 재배한 것에 반해 총채벼와 수타그라스 등 조사료 품목을 다양화하여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자 의견을 모았다.

한편 군은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목표 면적 달성과 친환경농업 등 당면현안업무 홍보를 위해 지난 2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홍보 담당관을 편성하여 각 읍·면 이장회의 시 사업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곡성=김광휘 기자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최신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